

한겨울이라 밖의 날씨는 쌀쌀하였지만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평양에육원을 찾는 우리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하였다. 정문에 들어서서 《세상에 부럼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라는 글발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추운 날씨에 찾아오시여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원수님을 못 잊어하는 원아들의 마음이런듯 게시판에는 《아버지원수님 기별도 없이 지나신 사랑받고 있습니다.》, 《행복넘친 원아들의 보금자리 더욱더 포근하고 따뜻해졌어요.》라는 글들이 씌여져있었다. 우리를 맞이한 최송환원장은 《자나깨나 뵈고싶던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에육원에 오셨을 때 꼭

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라고 말하며 2층 유희실로 이끌었다. 영광의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버지!》하며 달려와 안기는 원아들을 한층에 안아주시며 부모없는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

방들과 창고, 리발실, 놀이장들을 거쳐 원아들의 점심식사준비가 한창인 주방에도 들리었다. 그날 주방에도 들리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장발육에 맞게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느냐, 물고기과 고기는 어떻게 가공하

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시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새로 마련해주시겠다 하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말씀이 쟁쟁히 들

얼마전 우리가 평양시 육아원을 찾았을 때 그곳 종업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저마다 흥분

이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게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오셨다고 환성을 터치는바람에 모두가 기쁨에 겨워 밖으로 뛰어나가려는데 전날 밤에 있었던 꿈이야기를 했

이곳 사다리까지 놓아주어 별따러 올라가는 과정이 치료과정으로 되도록 꾸러진 문수기능회

복 받은 원아들

을 그리워한다고, 우리가 부모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밝고 바르게 잘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원아들의 방들에 들리시여 온도조절을 잘하라고 이르기고 하시고 앓는 아이는 없는가도 물어주신 그이의 모습은 정녕

어 먹이는가 등을 세심히 알아보시다가 주신 사랑이 적으신듯 아이들에게 매일 물고기를 300g씩 먹여야 한다고, 원아들에게 고기, 물고기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행복동

《전 꿈속에서 그이를 만나뵈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었답니다.》

《꿈에서 육아원을 찾아오신 원수님께서서는 원아들의 풍성한 식탁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며 저의 잔등까지 두드려주시었습니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될 줄이야. 김정은원수님께서 소문도 없이 그곳 육아원의 원아들을 찾아오신것이였

하기에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시려, 아버지사랑을 안겨주시려 꼭 오실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의 산물만이 아니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꼭 원아들을 보러 오실것이라는 이곳 종업원들의 믿음에 의한것이였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속에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시며 적아간의 최대열정적

우리 민족의 님이 깃들어 있고 이 나라의 지맥이 뻗어 내린 조종의 산 백두산!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래의 찬란한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백두산은 오늘 온 겨레의 마음이 달려오는 민족의 성산으로 빛나고있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후 해를 거듭하며 백두산을 찾는 과정에 이들은 백두산이 낳은 최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기상을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일을 수많은이 찾아하였다. 얼마전 선생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평 양 역 이 개 건 된 다

표를 산 다음 1층,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 2, 3번 홀으로 내려가 열차를 타며 도착 손님들은 2, 3번홀에서 지하도로 내려가 역전 공원으로 나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8년간 심영률선생과 그의 가족들이 백두산에 오른 회수는 30차, 백두산을 찾아 걸은 길은 연 12만여리에 달한다. 이 나날 685중에 수만여점의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백두산 천지종합탐험대원들에게 안겨주어 백두산의 자연비밀을 밝혀내어 그 위용을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한 이들이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후 해를 거듭하며 백두산을 찾는 과정에 이들은 백두산이 낳은 최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기상을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사람들

일을 수많은이 찾아하였다. 얼마전 선생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었다.

평 양 역 이 개 건 된 다

표를 산 다음 1층,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 2, 3번 홀으로 내려가 열차를 타며 도착 손님들은 2, 3번홀에서 지하도로 내려가 역전 공원으로 나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표를 산 다음 1층,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 2, 3번 홀으로 내려가 열차를 타며 도착 손님들은 2, 3번홀에서 지하도로 내려가 역전 공원으로 나가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김치맛 참 좋구만!》 (1)

글 김 정 희, 그림 김 윤 일

옛날 밤골이라고 부르는 마을에 밥상에 마주앉을적마다 눈꼬리를 잔뜩 치세우고 안해에게 눈을 흘기며 음식 타발을 심하게 하는 최령감이

성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품을 들어 정성껏 만들어 밥상에 올린 김치도 맛이 없었고 매일같이 타발질을 하곤 하였다.

보고는 버릇처럼 된 지청구를 늘어놓았다. 《여보, 당신도 눈이 있으면 저 개들을 좀 보라구. 앞면 저 누렁이는 회빛진 쓰름만 먹고도 저렇게 살이 찼지, 뒤집의 겁둥이는 또 뭇 먹었는지 피땀등하지만, 어런데 우리 집 얼룩이만은 어쨌서 패턴 하느스처럼 여위

더니 미나리김치가 쟁하고 새콤달달한게 맛이 잘 들었어요. 《말은 반찬같이 잘하는데 어디 이 김치에서 향긋한 미나리냄새가 나구나 하우.》 윤기나네 뽕떡거리는 큰

보라고 얼마간 내놓았더니 그들은 정말 시원하고 맛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며 맛있게 들었던것이다. (우리 령감의 입맛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어떻게 하면 그 입에 꼭 맞는 김치를 담그어드려 싶은 소리를 듣지 않올가.)

있건만 령감의 김치타발증은 나날이 더욱 심해졌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이었다. 들판에는 불내 여름내 품들여가꾼 곡식들이 누렇게 무르익어 설레이고 산에는 산마타 붉은 단풍이 들어 가을풍치를 한껏 떨치고있었다.

을을 해들이느라 눈코 뜰새가 없게 되었다. 이날도 아침 일찍 밥을 지어먹고 서둘러 발로 나가던 리씨는 문가에 놓인 무딘 낫가락이 눈에 띄자 방안에 대고 낮은 소리로 령감에게 부탁하였다. 《여보, 수고스러운데로 이 낫가락이나 좀 갈아주세

부락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리씨의 머리를 찻지만 이미 쏟아놓은 물이니 줄 욕이 그칠 때까지 서있을수 밖에 없었다. (어쩌면 저리도 물인정할 가?) 리씨는 생각할수록 령감이 민망스러웠다. 김치를 그처럼 좋아하는 령감을 위해는



발에서 김을 뿜 때에나 령감의 지청구가 리씨의 머릿속

령감내 발에도 알찬 열매들이 무르익었다. 그런데 그만 최령감이 다리를 다쳐 누워

우를 꼬집어대는듯 한 아픈 욕설이었다. 내가 팬한